

• 지역 매아리

고창군, 유해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임어, 붕어, 등 자개 등 토산어종들을 보호하고 내수면 생태계 안정을 위해 배스, 블루길 등 외래 위해어종 퇴치수매사업을 추진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외래어종 수매 사업은 1980년대 후반에 내수면 어업자원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한 배스, 블루길 등이 하천과 저수지에 정착하면서 고유어종과 치어를 잡아먹어 생태계 질서를 교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수매는 이 달 첫째 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성내면 풍천장어 철포식당 주차장에서 고창군민이 고창군 관내에서 포획한 외래어종만 수매하고 수매된 사체는 가축사료와 퇴비용으로 재활용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래어종 수매 사업과 더불어 토산어종 방류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토산어종 보호와 더불어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민관합동 낙식 제거작업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불철 해빙기를 맞아 탑방재 안전사고 예방을 하려고 격포 채석강 일원에서 서민관합동으로 낙식 제거작업을 펼쳤다. 이를 위해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해빙기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부안소방서, 내변산산악구조대 등 총 38명이 참가하여 붕괴 붕락 우려가 있는 자연 풍화된 끈돌과 고사목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채석장 낙식 안전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였다.

더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아울러 해빙기 안전진행 홍보 및 위험구역 환경경화활동을 지속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운지호 탑방시설과장은 “봄철 해빙기는 붕괴에 의한 낙식위험이 높은 민물, 암반지대를 지나갈 때는 붕괴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선 밖으로 그 구간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 운영

회원 가입하면 별도 대여료 없이 이용… 296종 1048점 구비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은 여성문화관 옆 건물 1층에 자리하고 있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거주하는 시민다면 연회비 2만원(보육시설·유치원은 5만원)으로, 월 1회 당 2점(보육시설은 5점)을 10일 간 대여 받을 수 있다.

장난감 대여점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나 유치원을 포함한 보육시설 종사자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별도 대여료

장난감대여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영유아 건강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보유 중인 장난감을 소독하고 있기도 하다.

회원 가입은 대여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재가입 등 자세한 내용은 복지여성과(이동보육팀 063-539-5528)나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063-535-0611)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계화 쌀 우수성 널리 알리는 계기 마련

부안군, 계화면민의 날 기념 계화간척지 쌀 축제 성료

제17회 계화면민의 날을 기념하고 계화간척지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화 간척지 쌀 축제가 지난 1일 계화면사무소 일원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국회 김종희의원, 조병서, 최훈열 도의원, 이한수 군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과 함께 열렸다.

특히 이벤트 행사를 지역 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계화미’ 브랜드 고장인 만큼 쌀을 주제로 한 천년의 솜씨 쌀밥전람회와 떡 메치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올렸고 고리 걸기, 제기치기, 투호, 게이트볼 등의 민속경기로 흥을 둘우었다. 이어서 마을의 노래 실력자를 찾는 면민노래자랑, 경품행사 등이 함께 미루어져 대체롭고 흥겨운 면민 행사가 되었다.

특히 이벤트 행사를 지역 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계화미’ 브랜드 고장인 만큼 쌀을 주제로 한 천년의 솜씨 쌀밥전람회와 떡 메치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계화간척지 쌀밥 자랑대회에서는 각 36개 마을에서 준비해 출품한 이색 쌀밥을 선보였으며, 특히 노을에 어울리는 쌀밥, 최상의 건강 with 천년의 솜씨, 꽃밥, 해풍미인 쌀밥, 먹을수록 맛있는 밥 등 기발한 밥 이름과 맛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이 아름다운 계화면장은 면민 모두가 간척농업 중심의 소득이 창출되는 부자 계화; 삼삼락이 풍부한 창조계화를 만들어가는 앞장서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립농약단, 8일 상반기 정기공연

‘벚꽃길 오감만족 삼도풍물 한마당’

정읍시립농약단이 오는 8일 상반기 정기공연을 갖는다.

벚꽃의 계절을 맞아 흘날리는 벚꽃잎을 배경으로 펼쳐질 공연을 벚꽃길 오감만족 삼도풍물 한마당이다.

당일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 특설 무대 앞(우천 시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이 광지원농악(웃다리 농악), 남원농악 보존회가 남원농악(호남좌도농악), 정읍시립농악단이 정읍농악(호남우도 농악)을 선보인다.

광지원 농악은 다양한 대형 변화와 오방진 등 화려한 진법을 선보이고, 남원농악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농

악으로 좌도농악의 테크닉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정읍시립농약단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정읍농악을 펼쳐 관객들의 흥을 돋움은 물론 호남우도 농악의 발상지 농악단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립농악단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벚꽃이 만개한 정읍천에서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농악과 회사한 벚꽃을 즐기며 아름다운 봄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 가장 성공한 삶”

고창군, 주진우 기자 초청 강연 호응

고창군이 선진 군민의식 정착과 평생학습기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의 본향 명품교 양강좌’에 시사주간지 ‘시사IN’ 주진우 기자 초청 강연을 마련했다.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표현의 자유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2일 고찰문화의전당에서 열린 강좌는 군민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강연은 주진우 기자가 지금 까지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보람했던 일을 비롯해 거대한 권력과 힘에 맞서면서도 꾸준하게 기자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마음가짐, 어린시절과 성장과정 등 참신한 군민들이 다양한 질문에 답하고, 그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취재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주 기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가치 있고 멋진 일을 하고 싶었고, 그 일이 ‘기자’라고 생각했다”며 “진실을 왜곡하는 일부 언론들을 보면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옳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기자로서의 직분에 충실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분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 민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의 자산과 가치를 보전하면서 개발해 나간다면 고창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 등록

‘공정한 부안프로젝트’를 내세우며 부안군수 도전에 나선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예비후보 등록 후 김성수 후보는 계화면민의 날에서 “청렴도 끌찌, 도의원 1명 축소, 더욱 힘들어진 서민들과

농어민들의 실림살이로 군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도덕성이 검증되고 실물경제의 경험으로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으켰던 파란을 다시 일으켜서 부안군이 우뚝 일어나게 만들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며 ‘실림살이’나 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예비후보 등록 후 김성수 후보는 계화면민의 날에서 “청렴도 끌찌, 도의원 1명 축소, 더욱 힘들어진 서민들과

/부안=이옥수기자

이상길 예비후보

정읍시 사선거구 기초의원 선거 출마

이상길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사선거구(시기동, 상교동, 초신동) 기초의원 선거에 나섰다.



이상길 후보는 “100년의 전통을 지닌 오거리시장, 정읍의 생명줄인 정읍천, 청단초입단지, 그리고 내장산리조트와 골프장 등 소중한 많은 자산과 훌륭한 여건을 지녔음에도 주민들께서 체감하듯 더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이지도 더 생각하고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며 출미의 변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주민들께서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느낄 수 있는 밤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당찬 자신감을 보였다.

이 예비후보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여성분들에게는 문화공간, 어르신들에게는 건강, 연인들에게는 만남의 장소, 주민들에게 살아서 행복한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되도록 꼭 만들어 내겠다”고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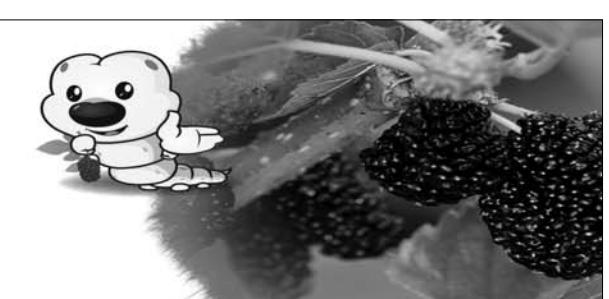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첨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빵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빵주와 함께 오디주의 창맛을 느껴보세요.

오늘날에는 기쁨을 오디 너머로 넓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깊고 품질을 한별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벼산반도 청정해역의 해물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달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은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양한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빵주
Premium
Ohdi Wine

KOREAN TRADITIONAL WINE
GANGSANMYEONGJU
TEL : 063-584-9980
www.gangsanwine.com